

공상과학 소설 속 꿈을 현실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업적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영예는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혁명적 연구성과를 낳은 미국의 아서 애슈킨(96), 프랑스의 제라르 무루(74), 캐나다의 도나 스트리클랜드(59) 등 3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시력교정 수술 등과 같이 매우 정밀한 의학·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도 정밀기기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발명이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 대변혁을 가져왔다"며 "정밀기기들이 탐입되지 않은 연구 분야와 여러 산업, 의학 분야 적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동수상자 중 도나 스트리클랜드는 지난 1963년 이후 55년 만에 노벨 물리학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 여성 수상자가 돼 더욱 눈길을 끈다. 노벨물리학상 역사상 여성 연구자 수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스트리클랜드는 수상자 발표 직후 AP 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말도 안된다"라며 감격스러워 한 뒤 "여성 과학자들에게

입자·원자·바이러스·세포 집는 '광학 집게' 발명 의학·산업용 고도정밀기기 분야 발전 획기적 기여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올해 96세의 애슈킨은 노벨상 전 분야를 통틀어 사상 최고령 수상자가 됐다. AP통신은 애슈킨이 이전 최고령 수상자였던 레오니트 후르비치(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당시 90세)의 기록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AT&T의 벨연구소 출신인 애슈킨은 입자, 원자,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등과 같은 매우 작은 물질을 레이저빔으로 손쉽게 집을 수 있는 '광학 집게'를 발명해냈다고 왕립과학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87년 광 집계를 이용해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집는 데 성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왕립과학원은 "그가 발명한 도구들은 빛의 복사압을 이용해 물질을 이동시키는 공상과학 소설 속 오래된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수인 무

루와, 그의 제자이자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교수인 스트리클랜드는 산업·의학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레이저 파동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들이 개발한 'CPA' 기술은 오늘날 고강도 레이저의 기준이 됐다고 왕립과학원은 밝혔다. 이 기술은 시력교정 수술과 같이 매우 정밀한 의료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 3명의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9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1억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900만 크로나 가운데 절반은 애슈킨에게, 나머지 절반은 무루와 스트리클랜드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노벨위원회는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5일 평화상, 8일 경제학상 수상자 등을 발표한다. 올해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 논란으로 문학상 수상자는 1949년 이후 69년 만에 선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복합 VR테마파크 '로켓VR(미움치웃VR)'에서 방문객들이 증강현실(AR)을 접목한 레이싱게임 '하도카트'(HADO KART)를 체험하고 있다.

“광주에서 증강현실 체험하세요”

광주CGI센터 입주 (주)위치스 동구 충장로아울렛에 VR테마파크 '로켓VR' 개장 자체 개발 VR·AR 선보여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3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광주CGI센터 입주기업인 (주)위치스(대표 고미아)는 (주)피엔아이컴퍼니와 공동 기획·투자로, 광주시 동구 충장로아울렛에 복합 VR테마파크 '로켓VR(미움치웃VR)' 문을 열었다.

'로켓VR'은 1층 '로켓 SHOOTING(슈팅)'을 비롯해 2층 '로켓 KART(카

트)', '로켓 HUNTER(헌터)', '로켓 VR ROOM(VR방)', '로켓 HORROR(공포)', '로켓 ADVENTURE(모험)', '로켓 SPEED(스피드)', '로켓 ROLLING(롤링)', '로켓 ROBOT(로봇)' 등 슈팅게임과 공포체험, 모험 등 9개의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총 992㎡(300평) 규모로, 49개의 VR과 A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VR 게임존에서는 외계 생물에 맞서는 로봇 슈팅 게임 '아담: 루인드 시티'와 만리장성 투어를 할 수 있는 '만리장성', VR 롤러코스터 '노리미츠2',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2'은 물론,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VR콘텐츠 전문기업 '인스퀘어'에서 개발한 호러 VR게임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콘텐츠에 이어 운영 솔루션(solution)을 도

입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콘텐츠와 시뮬레이터 동작을 제어, 안전사항과 티켓 관리까지 한번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1패스 6000원, 3패스 1만5000원, 5패스 2만원, 프리패스 2만5000원으로, 1회 5인 이상 결제하거나 학생증을 지참하면 20% 할인이 적용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고미아 (주)위치스 대표는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VR체험존으로 광주도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문을 열게 됐다"며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VR·AR 콘텐츠를 선보이고 충장으로 젊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KT, 에너지사업 전시관 운영

KT가 5일까지 나흘 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KT 에너지사업 전시관을 운영한다.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이 행사에서 KT는 기가(GIGA)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KT 기가 에너지'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전시는 KT-MEG 플랫폼 기반의 미래 가상발전소 모형과 기가 에너지 매니저 등으로 꾸며진다. KT-MEG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엔진 '이브레인(e-Brain)'이 탑재된 세계 최초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이다. 전시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들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영상을 통해 관람객은 가상발전소 기술을 적용한 미래 에너지 세상을 엿볼 수 있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알아내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서비스다. KT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절감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람객은 직접 고객에게 제공되는 웹페이지를 체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최근 진행된 '미디어 나눔버스' 행사.

'미디어 나눔버스' 복지시설 등 180곳 찾아간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체험활동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 나눔버스'를 타고 올해 소외계층이 있는 180곳을 찾아간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난해 구축한 미디어 나눔버스는 맞춤형 미디어체험을 할 수 있는 이동형 체험스튜디오로 전국 농산 어촌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김정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를 찾아 미디어 체험활동을 펼쳤다.

미디어 나눔버스에는 각종 방송제작 시설이 설치돼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형식의 영상편지를 찍는 '시시콜콜 가족뉴스'와 화면합성 기법(크로마키)을 활용한 '신기한 마법TV 미디어체조', 바다와 우주를 배경 삼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뽀뽀뽀 댄스' 등을 즐길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대 SW융합교육원, 조대부고·동신여고 대상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주 1회 2시간씩 총 20시간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웅)은 3일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올해 1학기 조선대 부속고등

학교 3학년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것에 이어 이번 2학기에는 조대부고와 동신여자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W융합교육원 조영주 담당교수를 비롯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불특정 기

반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관련 SW교육,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고급 프로그래밍언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매주 1회 2시간씩 총 20시간을 진행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 관계자는 "2학기 역시 소프트웨어 분야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추후 SW분야에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